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8. 6.(목) 10:30 배포 2026. 8. 5.(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 소백산의 품으로

- 야생 적응력 높은 1년생 위주 28마리,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방사
- 토종 여우의 야생 개체군 복원 및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한 관심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백두대간 생태축 회복을 위해 8월 6일 오전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 28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 생태축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여우 확산의 중요 거점으로, 2012년부터 여우 복원사업을 추진해 온 곳이다. 현재 이곳에는 7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복원목표) 2027년까지 △소백산권역 활동개체 100마리, △ 3대 이상 번식 활동이 확인되는 소개체군 5개 이상 형성

이번 방사 대상인 28마리(암컷 14마리, 수컷 14마리)는 시설 내 증식을 통해 태어난 개체 중 야생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개체로 선발됐으며, 대부분(25마리, 약 90%) 작년에 태어난 만 1년생 개체들이다.

해당 여우들은 8개월 전부터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자연적응장에서 사냥 기술 습득 등 야생적응 훈련을 마쳤으며, 소백산 일원으로 넓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4곳의 방사장에서 1개월 전부터 그룹별로 방사 예정지 주변 환경에 적응 중이다.

이번 방사는 여우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변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연방사(기존 활동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식)' 형태로 진행된다.

방사하는 모든 개체에는 위치추적 장치(GPS)가 부착되어 약 2년 정도 동선이 파악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방사 초기에 동물찻길사고(로드킬), 농약중독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정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24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일주일 전부터 자체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펼쳤으며, 방사 전날인 8월 5일에는 방사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엽구 사용금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여우 방사는 소백산을 넘어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여우가 전국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우 출몰지점 주변의 동물찻길사고 예방을 비롯해 불법엽구 근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관련사진.
2. 여우 활동 현황.
3. 여우 분포 현황.
4. 질의응답. 끝.

총괄	국립공원공단 생태복원부	책임자	부 장	진유리 (033-769-9470)
		담당자	계 장	김낙원 (033-769-94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관련 사진**






방사개체 사진



방사지 전경(1)



방사지 전경(2)



방사지 자연적응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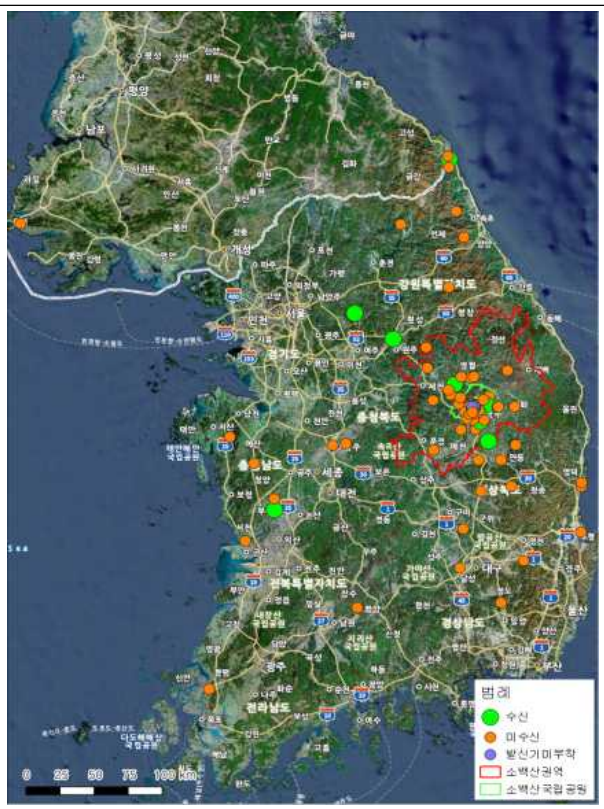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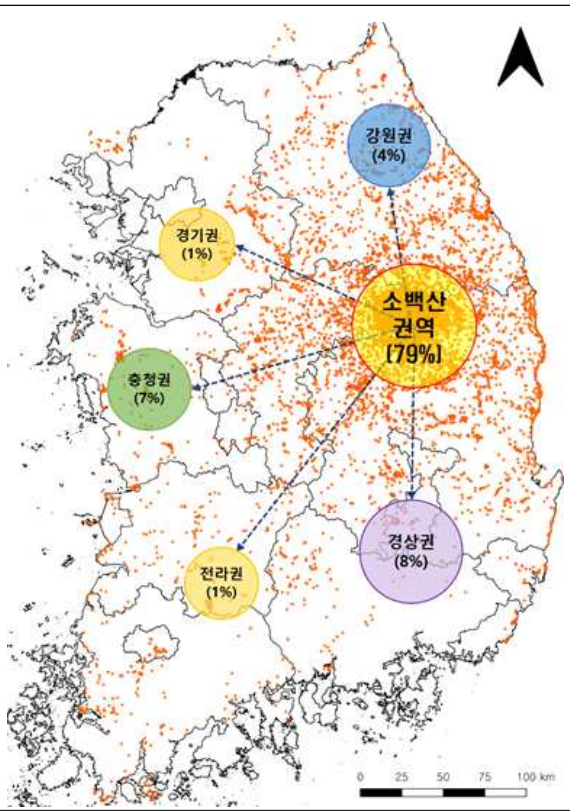
방사지 자연적응장(2)

붙임 2 **여우 활동 현황('26. 6. 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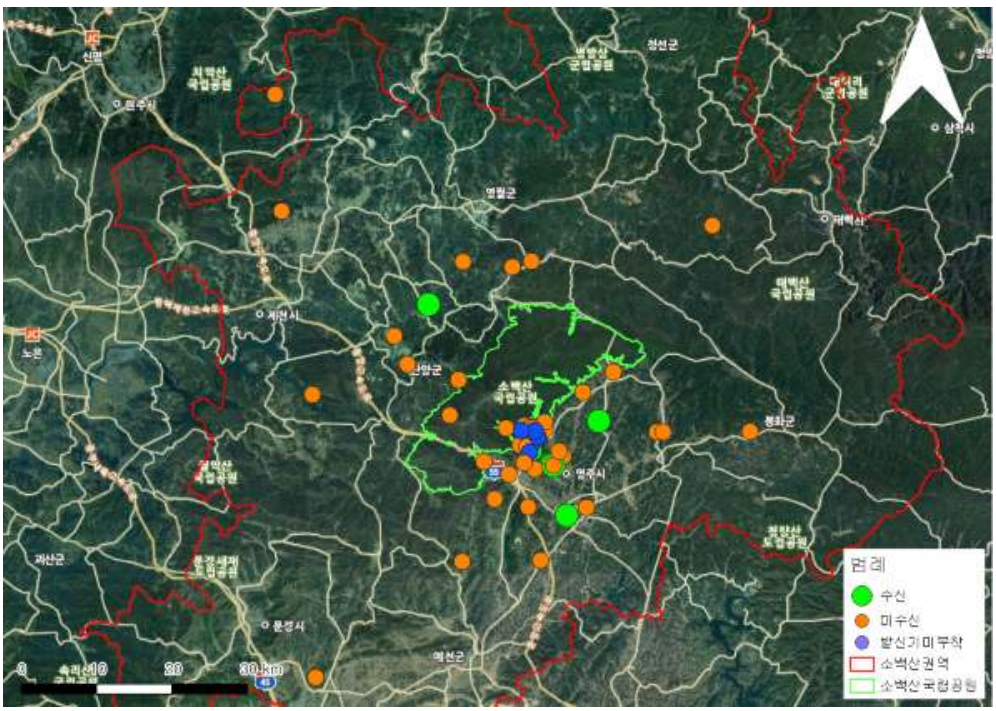
□ (현황) 110마리 활동, 소백산 권역(77마리), 권역 외(33마리)

※ 소백산권역 : 영주, 봉화, 예천, 문경, 단양, 제천, 영월, 정선, 태백





전국 분포 현황



소백산권역 내 분포 현황

붙임 3 **질의응답**

1. 현재 자연에서 활동중인 여우 개체수는?

○ 현재 전국적으로 약 110마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소백산 권역에 77마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그룹방사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 방사 전 동일 계류장에서 합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한 개체를 동일 그룹으로 방사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초기 정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방사 후 관리방법은?

○ (개체관리) 방사 시 목 부위에 부착한 위치추적 발신기(GPS)를 활용한 장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 초기 2주간은 24시간 주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이후 6주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착여부, 생존 여부, 이상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 (서식지관리)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찻길사고, 엽구피해, 농약중독 예방 등 서식지 안정화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4. 방사한 여우의 일반적인 수명은?

○ 현재까지 방사한 여우 259마리 중 엽구, 찻길사고,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의해 죽거나 회수된 개체는 1년 이내 약 35.9%(2주 이내 7.3%, 8주 이내 18.1%)에 달하며, 야생 여우의 수명은 3~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단은 안전한 정착을 위해 방사 초기 집중모니터링, 위험지역 접근 여부 확인,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서식지 안정화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여우 발견 시 대처 방법은?

○ 여우 대부분은 습성상 사람을 먼저 피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친숙하거나, 서식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여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우를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유지해 피해야 합니다. 먹이를 주거나, 위협하는 행동 또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다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여우를 발견하셨다면 즉시「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고 1 여우의 생태적 특성

구분	내용
종명	여우
보호현황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형태	머리와 몸통의 길이는 60~80cm, 꼬리의 길이는 40~50cm, 지면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는 30~40cm 정도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6~10kg, 암컷은 5~8kg 정도로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크다. 크기와 몸무게는 부모개체와 사는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활동	산지와 평야의 접경 지역, 초원, 마을 인근 숲의 완만하고, 햇빛이 잘 들며 굴을 파기 쉬운 곳에 주로 서식한다. 낮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휴식하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특성을 가진다. 특히 해가 질 무렵과 해가 뜰 무렵에 왕성한 활동을 한다.
먹이	여우는 잡식성 동물로 쥐와 같은 설치류, 우제류(새끼 또는 사체), 토끼 꿩 등의 소형동물, 개구리, 뱀 등의 양서류와 파충류, 메뚜기 등의 곤충류, 산딸기, 머루 등의 식물열매와 풀 등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다. 하루에 평균 약 0.5kg 정도의 먹이를 먹는다.
번식 및 생활사	일 년에 한번 짝짓기를 하며, 태어난 새끼는 그해 성장을 하여 어미에게서 독립한다. 자연상태에서 수명은 평균적으로 3~6년 정도이다.